

강진 출향인 유튜버와 ‘강진 쌀귀리’ 온라인 홍보 진행



강진군은 지난 21일 영향력 있는 파워 유튜버가 운영하는 ‘후다닥요리’

채널 라이브방송을 통해 강진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중인 쌀귀리를 전국

‘후다닥요리’ 박석암씨, 성전면 출신...현재 구독자수 39만명 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농특산물 판로 어려움 겪는 농업인 위해 제안

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라이브방송에서는 ‘쌀귀리 건 강한 밥상’이라는 주제로 쌀귀리밥, 쌀귀리선식, 쌀귀리비빔밥 등 요리와 정과 쌀귀리에 대한 효능을 설명하였다. 또 쌀귀리 원곡 및 가공식품의 직거래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업체별 연락처도 댓글에 기재해 홍보 홍보하는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홍보도 진행했다.

‘후다닥요리’와 ‘영산대 큰며느리’라

는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박석암씨는 강진군 성전면 출신으로 현재 구독자 수 39만 명, 총 조회수 5,700만 회 이상을 넘는 인기 유튜버다. 현재 푸드 크리에이터로 요리를 소개하는 동영상만 773개를 제작해 운영 중이다.

이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소비위축으로 농특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 농업인들을 돕기 위하여 유튜버

박석암 씨의 제안으로 강진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유튜버 박석암 씨는 “고향인 강진을 위해 뜻 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강진군 홍보를 위해 앞으로 양질의 영상제작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초록민음 직거래 지원센터(www.gangjin.center)’와 전남도에서 운영

하는 ‘남도장터’를 통해 농특산물 유통망을 확보하고, 업체별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묵은지, 표고버섯, 토마토, 토하짓 등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강진군 유튜브 및 SNS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적극적인 강진농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전신주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 안 된다

아트 프린트 가미 ‘부착 방지시트’ 큰 호응

장흥군은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군민·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흥로 등 주요 지역에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 완료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사업’은 가로 미관을 해치는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의 부착을 예방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착 방지시트는 주민 설치 요청 지역, 군민 다수이용 장소 등을 우선으로 주요 도로의 전신주, 신호기,

CCTV 등 가로 시설물에 설치했다. 또한 오래되거나 훼손되어 있어 기능을 상실한 기존 부착 방지시트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새롭게 교체했다.

이번 사업은 2019년 방지시트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장흥읍 상권 중심지 곳곳에 311개의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했으며, 상습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하여 민원 발생이 잦은 곳을 우선 조치해 주민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높다.

특히 올해는 행복 장흥 건설을 위한 ‘4메카 4시티’ 군정 홍보를 디자인한 아트 프린트를 가미하여 설치했다.

이들 통해 장흥군은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을 근절하고, 거리를 다니는 군민들이 친숙하게 군의 주요 시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많은 유동인구와 관광객들이 찾는 장흥로·건산로 거리를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고장, 품격 있는 노인·아동·여성친화도시 장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드림스타트, 44개 업체와 후원 협약 체결

완도군은 2월 1일부터 17일까지 관내 44개소 업체와 드림스타트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 업체를 찾아 150명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협약 업체는 2009년부터 함께해온 업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롭게 후원의 뜻을 밝힌 업체를 포함하여 ▲치과 10개소 ▲제과업 7개소 ▲미용실 21개소 ▲학습지 2개소 ▲피아노학원 4개소 등 총 44개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과에서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연 20만 원까지 할인해주고, 다른 업체에서도 서비스 제공 시 2천원에서 2만원까지 후원해주는 등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림스타트 아동들 후원에 언제나 호의적인 피아노학원장님들은 “아이들 재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후원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윤 여성가족과장은 “후원자들과 뜻을 모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해남에서 봄 기운 충전하세요”

해남군은 오는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해남 산과 숲길 이야기’를 주제로 비대면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남군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행 수요를 반영해 해남의 대표 산과 숲길을 비대면 개별여행으로 걸

지점은 달마산 8개소(달마고도 스텝프함 6개소, 달마봉, 도솔암), 두륜산 3개소(가련봉, 두륜봉, 노승봉), 갈두산 2개소(땅끝전망대, 땅끝탑), 흑석산 1개소(깃대봉) 등이다.

해남군 페이스북을 통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행사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해남군, 다음달 13일부터 ‘해남산과 숲길 이야기’ 운영

해남 4대산 트레킹 명소 비대면 걷기...선착순 1000명

어보게 된다.

카카오채널(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을 통해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하며, 참가자에게는 행사 참여 인증상품을 미리 발송해준다.

행사기간 동안 14개소 인증지점 중 한 군데 이상 방문하고 인증샷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국민들이 아름다운 산과 숲길을 걸으며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달마고도를 비롯해 산, 숲, 바다 등 청정 힐링 명소에서 봄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겨울 해풍 맞고 자란 진도 봄동 배추 수확 ‘한창’

단 맛 일품...비타민C·칼슘 등도 풍부

진도군은 한겨울 해풍을 맞고 자란 단맛이 일품인 진도 봄동 배추(일명 띠배추)의 수확이 한창이라고 24일 밝혔다.

진도군의 대표 농산물인 봄동 배추는 줄기와 잎 부분이 부드럽고 맛이 좋아 된장국이나 나물무침, 겉절이 등으로 요리하면 구수하고 향이 진하다.

또 늦가을 씨를 뿌려 추운 겨울을 이겨내 칼슘과 칼슘, 인이 풍부하고 빈혈·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있어 도시권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진도군은 전국 봄동 주산지로 전체 200여 농가가 100여ha에서 연간 3000여t을 생산, 1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봄동은 남자 어른이 두 손을 펼쳐

엮었을 때의 크기가 최고 상품으로 잎이 뽕뽕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겉절이로 사용할 때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다.

진도군 관계자는 겨울철 찬바람 된서리도 보약 삼아 자라는 진도 봄동은 일반 배추보다 씹는 맛이 고소하고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해 면역성 확보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